

도동서원규목(道東書院規目)

1918_정구(鄭逵) 지음_52.0×210.0cm



정구(鄭逵, 1543~1620)에 의해 제정된 도동서원학규(道東書院學規)를 새긴 것으로 서원의 제례(祭禮)를 비롯한 구성원의 임무 등 서원 운영의 제반 규범이 적혀있다. 다른 서원의 학규에 비해 내용이 매우 상세하며, 도 동서원만의 독창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6세기에 제정된 이황(李滉)의 『이산원규(伊山院規)』를 기반으로 발췌된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현재의 현판은 1918년에 다시 제작한 것이다.

道東書院規目

- 謹享祀 鄉校 實爲本原之地 而近來類敵太甚 雖有識之士 亦不免自混於流俗 而如視他人家事 此豈 國家之尊聖衛道之意哉 自今院任 每值上丁 率境內儒生 先期齊會釋奠後 本院祀事 行於中丁 庶幾彼此一體 先後有倫也

本院享禮 自有儀式 今不別具 但院長 前期具脩 齋肅嚴潔 恪謹行事 如有不參之員 書于籍 有故無故竝錄之 以待後會面責 至七度不參者 乃黜之 無故不參者 五度而黜之 如有疾病廢癩 衆所共知者 或出行遠方 未及來還者 皆不在此律

每於朔望 在院儒生 盛服青衿 焚香再拜於

先生廟

- 尊院長 院長者 所以爲一院之長 而主盟倡道 以興起朋徒者也 入院之士 所當尊畏矜式 不敢輕忽 而爲院長者 亦自端重鈇厲 無自辱焉

院長之任 不可數數輕改 至有不得已之故 則自具狀告于院中 院中齊會商議 改卜新員 不敢胡亂薦舉 必得衆所推服一意敬信者 通可否無異辭而後定之 既卜之後 院中具狀 遣僮輩中一人迎請 令新舊交代 凡院中規模曲折 竝皆喻告舉行 書冊什物 亦皆傳掌之 院長或有過誤 行輩間密相鐵規 庶幾令不違而復 面責損徒之罰 不敢加於院長 或所失者大 不復可安於院長之職 則院長必自引咎而請改矣 置院長錄 錄前後院長 竝書任遞年月 令後之任 此者 庶幾有所披閱而欽戒也 有司亦書之

- 一 擇有司 有司者 亦所以管攝一院之事者也 院長與院中 同議擇之 必得純謹精詳之人而任 之 庶幾同心共治一院之事 如有用心蠱悖 不肯盡心力於院事 或濫冒無恥 多惹外說者 小則院長飭之大則院中責之 終不悛者 院長與院中 同議黜之

- 一 引新進 每於享祀之日 議引新進 每人各薦一員 進于院長 如無可薦 不必強舉 院長通可否 採衆議而定之 如用可否 則宜只取純點 書于籍 曰某年某月某日所引 又各於名下 竝書某人引【所引之人 雖多竝書之】

凡所薦進 必二十歲以後有學行可觀者 雖未滿弱冠 而司馬入格 或累中鄉舉 而才行超異 可齒三益之列者

【大概只觀學行成就之如何 豈可拘拘於科舉之得失耶 既擇之後 院長具書迎之】

入院之士 如有行實不脩 舉止踰違者 輕則院長糾之 重則院中責之 用心減裂 終不肯改 者 院長與院中 齊議黜之 前日所引之人 竝行擯徒之罰 庶幾引進之際 有所慎重而不敢輕舉【噫 孟子 子曰 觀遠臣以其所爲主 觀近臣以其所主 後人之觀此錄者 據其所引之如何 而其人之邪正得 失 亦將難逃矣 宜各謹慎勉勵 無相爲累焉】

志氣衰惰 不復能振發者 或已經鄉任 不肯從事於問學者 竝聽出院

遠方之士 如有願入者 雖無引之者 學行成就而別無顯失者 亦許入

新學小兒凡在二十歲以下者 皆聽養蒙齋入學 雖二十歲以後 未及入院之選 而願入養蒙齋 者亦聽

- 一 定坐次 坐必序齒 若有異爵者 或有他客 竝皆別序 養蒙諸生 竝坐南行
- 一 勤講習 院長迎請朋徒 不廢勸講 冬春 五經四書與伊洛諸性理之書 夏秋 史學子集 任其所讀 夫入院之士 雖不能不爲科舉之事 而科舉之外 亦有古人所謂爲己之學者 苟能不全爲彼所奪 而或能用心於此焉 而求之於日用性分之內 則其存心之地 用力之方 庶幾不越乎敬之一字矣

伊川夫子 始表章之 而

雲谷夫子 大發明之

寒喧堂一生辛苦 皆是此字 願與諸君共勉勉而不敢已也

凡入院之士 必須戰兢自持 衣冠必飭 言笑必莊 凡戲謔喧譁 狎侮鄙薄之態 皆不敢近 白鹿學規揭在楹間 宜朝夕觀瞻 以爲勸率之地 而又略倣呂氏鄉約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庶幾無負今日責望之意

朝廷利害 邊報差除 州縣官員長短得失 衆人所作過惡 皆不得言之

淫媒女色不正之言 干索食物無恥之事 皆不得爲之

【干索食物 如今學中所請後接禮歸家禮等事皆是】

如今學中倒懸乘風 擊膝攀几 凡諸鄙狎之事 皆不得爲之

持志制行 宜和厚謹慎 凡在尚氣喜激之事 皆不得爲之 蓋聖賢之學 初不在於任氣輕俠狂言妄語 咬得菜根 自是儒者本分內事 院長饒饒之事 土主養育之誠 固不敢忽 而入院之士 則不可自去理會取舍 以損其德性也

養蒙諸生 必命蚤起晏寢 誦習小學 嚴立課程 痛加繩糾 揖拜有度 辭氣謙遜 庶幾入學之初 純熟禮義而有所進就也

足容必重 手容必恭 目容必端 口容必止 聲容必靜 頭容必直 氣容必肅 立容必德 色容必莊 坐必端直 行必舒恭 入院之士 固不敢不勉 而養蒙諸生 尤加警飭 又令揭其窓壁 出入觀省 羣居講習之事 固不敢廢 而誘掖作成之方 責在土主 暇日來會 倡率諸生 講明古人之學而勸導之 則觀感慕效之間 自有成就興起之不可言者矣

古人設院之意 所以避朝市城郭之鬧 置寬閑寂寞之境 庶幾官家法令 不相拘掣 而隱居抱道之士 或相往來講說 而無所不屑 而斯文朋徒 得以樂聚而興起焉 則守令勸課之政 初不相與 而朝廷右文之化 自有浸漸不覺之效矣

- 一 禮賢士 或在境內 或住隣邑 或致事退伏之賢 或樂道高尚之士 豈無其人哉 院長宜率朋 徒以禮迎請 而師尊之庶幾有所觀感而慕悅之 則其得可勝言哉 苟能行之 此言夫豈空言而止哉

- 一 嚴禁訪 莊列老釋之書 棋局博奕之戲 皆不得入院 凡異色之人 皆不得出入 【異色如武夫藝術之徒】

清酌之外 不得釀酒

尹祭之外 不得殺牛

婢子不得出入齋堂 舉案進止

如脩字點書 考廩會計等條 自有虛侯之規 可以遵守 今不復云

崇禎後五戊午六月 日 重刊

도동서원규목[道東書院規目]

- 一 향사를 경건히 한다[謹享祀]

고을 학교는 사실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 되는 곳인데 요즘에는 의식이 해이해진 정도가 지나쳐 비록 식견이 있는 선비라 해도 스스로 세속에 휩쓸려 남의 집안일처럼 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에서 정력하는 성현을 존경하고 도를 보위하는 뜻이겠는가. 앞으로 원임(院任)은 항상 정일(丁日)을 만나면 경내의 유생을 인솔하고 미리 한자리에 모여 석전(釋奠)을 행한 뒤에 본원의 향사는 중정(中丁)에 행함으로써 유생 상호간에 일체감을 갖게 하고 선현에 대한 향사가 선후의 순서가 있도록 해야 한다.

본원의 향사에 관한 예는 본디 그 의식이 있으므로 여기에 따로 갖추어 논하지 않는다. 다만 원장은

미리 제찬을 갖추어 두며 재계를 엄숙하고 정갈히 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낸다. 만일 불참자가 있을 때는 문서에 그 성명을 쓰되 유고(有故)와 무고(無故)의 사정을 아울러 기록하여 나중에 모였을 때 면전에서 책망한다. 7년까지 불참한 자는 명단에서 축출하되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한 자는 다섯 번째에 축출한다. 만일 병이 들어 그 사실을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자이거나 혹은 먼 지방에 나가 미처 돌아오지 못한 자의 경우는 모두 이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언제나 삭망 때에는 서원에 있는 유생은 청금(靑衿)을 정중히 차려입고 선생의 사당에 분향 재배한다.

— 원장을 존경한다[尊院長]

원장은 한 서원의 어른이 되어 서원 유생의 상호간 유대를 주관하고 앞길을 인도함으로써 많은 벗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마땅히 그를 존경하고 모범으로 삼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원장이 된 자도 스스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기다들어 욕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원장의 직임은 자주 선불리 바뀌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글로 갖추어 원중(院中)에 고한다. 그러면 원중에서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의하여 새 사람을 바뀔 정하되 감히 어지럽게 천거하지 말고 반드시 많은 사람이 승복하여 한뜻으로 존경하고 믿는 자를 가려 가부간에 서로 이문이 없는 사람으로 정한다. 이미 정한 다음에는 원중에서 글을 갖추어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맞아들여 신구 원장이 교대하게 한다. 이때 신임 원장에게 원중의 모든 규례와 사정을 모두 알려 주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서책을 비롯한 집기들도 다 넘겨주어 관장하도록 한다. 원장이 혹시 과오가 있을 때는 같은 또래의 동료들이 남몰래 서로 충고함으로써 빨리 그 과오를 시정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얼굴을 대놓고 책망하거나 손도(搢徒)하는 법은 감히 원장에게 가하지 않는다. 혹시 잘못을 범한 정도가 커서 더 이상 원장의 직임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경우에, 원장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원장록(院長錄)을 비치해 두고 역대 원장의 성명을 기록하되 임명되고 교체되어 나간 연월을 아울러 기록함으로써 후임 원장이 그것을 열람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유사(有司)의 성명도 기록한다.

— 유사를 가려 정한다[擇有司]

유사 또한 한 서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이다. 원장과 원중이 함께 논의하여 고르되 반드시 순박하고 신중하며 치밀한 사람을 골라 맡겨야 한마음으로 함께 서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마음 쓰는 것이 거칠고 어긋나 서원 일에 모든 정성과 힘을 쏟으려 하지 않는다면 혹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들 앞에 나서며 항간의 말썽을 많이 야기한 자는 그 허물이 작을 때는 원장이 훈계하고 클 때는 원중에서 책망한다. 그래도 끝내 고치지 않는 자는 원장과 원중이 함께 논의하여 축출한다.

— 신진을 영입한다[引新進]

언제나 향사하는 날 신진을 논의하여 영입한다. 누구나 각기 한 사람씩 추천하여 원장에게 올리되 만일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굳이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 원장은 그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중론을 모아 정한다. 만일 가하다는 판결이 난 사람을 영입할 경우에는 순점(純點)을 맞은 자만 취하고 명단에 모인 모월 모일에 영입하였다고 쓴다. 또한 각 성명 아래 추천한 사람도 아울러 기록한다.

【추천한 사람이 비록 많더라도 아울러 쓴다.】

천거하여 올리는 대상은 반드시 20세 이상으로서 훌륭한 학행이 있는 자로 한다. 또 비록 약관(弱冠)이 채 안 되었더라도 사마시(司馬試)에 입격하거나 혹은 향시(鄉試)에 합격하고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 유익한 벗의 반열에 끼일 만한 자로 한다. 【대체로 학행의 성취가 어떠한가만 살펴볼 뿐이니, 어찌 과거 시험의 합격 여부를 따질 것이 있겠는가. 이미 선택한 뒤에는 원장이 글월을 갖추어 그를 맞아들인다.】 서원에 들어온 선비 중에 만일 행실을 닦지 않아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정도가 작으면 원장이 바로잡고 크면 원종이 책망한다. 마음씨가 무모하고 경솔하여 끝내 고치려 하지 않는 자는 원장과 원종이 함께 논의하여 축출한다. 전일 추천해 올린 사람도 아울러 손도(搢徒)의 별을 시행함으로써 추천해 올릴 때 신중히 하고 감히 함부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 맹자께서 말씀하기를, “만 나라에서 온 신하의 본색을 살펴보려면 그가 부처 살았던 집의 주인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조정에 벼슬하고 있는 신하의 본색을 살펴보려면 그의 집에 부처 사는 손님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이 명단의 기록을 살펴본 뒷사람은 추천된 인물이 어떠했는가를 근거로 삼아 그를 추천한 사람의 사정(邪正)과 득실(得失)도 알게 될 것이다. 삼가고 노력하여 서로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의지가 약하고 해이해져 더 이상 분발하지 못하는 자이거나 이미 향임(鄉任)을 역임했더라도 학문에 종사하려 하지 않는 자는 모두 서원에서 축출한다.

먼 지방의 선비 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비록 그를 추천하는 자가 없더라도 학문과 행실이 성취되었고 특별히 드러난 과실이 없으면 또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새로 글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20세 이하인 자들은 모두 양몽재(養蒙齋)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록 20세가 지났더라도 미처 원유(院儒) 선발에 들어오지 못해 양몽재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또한 그 요구를 들어준다.

— 앉는 차례를 정한다(定坐次)

앉을 때는 반드시 나이 순서대로 한다. 만일 벼슬이 높은 자가 있거나 혹은 다른 지방의 손님이 있을 때는 모두 별도로 차례를 정해 앉는다. 양몽재의 제생은 모두 남행(南行)에 앉는다.

— 강습을 부지런히 한다(勤講習)

원장은 벗들을 불러들여 학문을 권하고 강습하는 것을 폐하지 않는다. 거울과 병에는 오경(五經)과 사서(四書) 및 이락(伊洛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여러 성리서(性理書)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는 역사서, 자서(子書), 문집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내키는 대로 읽도록 한다. 본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과거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과거 시험 이외에도 옛사람의 이른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는 것이 있다. 만일 저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쏠리지 않고 혹시 이쪽에 마음을 기울여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타고난 본성 속에서 위기지학을 찾는다면 마음을 두어야 할 곳과 힘을 들여야 할 길은 아마도 경(敬) 한 자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천(伊川 정이) 부자(夫子)가 처음 세상에 밝혔고 운곡(雲谷 주희(朱熹)) 부자께서 크게 천명하였다.

한원당(寒喧堂 김경필(金宏弼))께서 일생 동안 절실히 추구한 것은 다 이 경(敬) 자였다. 이에 대해 제군과 함께 노력하고 감히 중단하지 않기를 원한다.

본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누구나 반드시 전전궁궁한 마음을 지니고서 의관을 반드시 단정히 하고 말씨와 웃음을 반드시 장중히 할 것이며, 실없이 농담하고 떠들어 대거나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행태는 모두 감히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규(學規)를 문 위에 걸어 두고 아침저녁으로 주시함으로써 스스로 힘쓰고 후배를 선도하는 기회로 삼는다. 또 「여씨향약(呂氏鄉約)」을 대강 본떠 덕행과 업적을 서로 권하고 과실을 서로 바로잡아 주며 예의의 풍속을 서로 나누고 근심과 재난을 서로 구해 주어야 그런대로 오늘 경계하고 기대하는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조정의 이해(利害), 변방의 소식, 관원의 제수, 고을 관원의 장단과 득실, 못사람이 저지른 죄악 등에 관해서는 모두 언급하면 안 된다.

음담패설 등 여색에 관한 부정한 말이나 음식물을 요구하는 뻔뻔스러운 일은 다 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을 요구하는 일은 지금 학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후접례(後接禮)니 귀가례(歸家禮)니 하는 사례가 모두 그런 것들이다.】

지금 학당 안에서 자행되는 사례로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바람을 쏘이게 하거나 무릎을 때리고 꺾을 들어 올리게 하는 등 일체 추잡하고 상스러운 일은 모두 해서는 안 된다.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는 마땅히 너그럽고 중후하며 삼가고 조심하여 일절 혈기를 앞세우고 과격함을 지향하는 일들은 모두 하지 않는다. 대체로 성현의 학문은 애당초 객기를 부려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을 실없이 하는 데에 있지 않다. 나물 뿌리를 씹는 것은 본디 유자(儒者)의 본분이다. 원장이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나 본 고을 수령이 보살펴 주는 정성이야 물론 감히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서원에 들어온 선비로서는 음식의 분배에 스스로 간여하거나 취사선택을 함으로써 그 덕성(德性)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양몽재(養蒙齋) 제생에 대하여는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이 깊은 뒤에 잠자리에 들어 『소학(小學)』을 읽어서 익힐 것을 명하되, 그 과정(課程)을 엄격히 세워 기차없이 훈계한다. 읍하고 절하는 것이 법도가 있고 말씨가 겸손하여야만 배움의 길로 들어선 초기에 예의를 잘 익혀 진취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발의 태도는 반드시 진중해야 하며, 손의 태도는 반드시 공손해야 하며, 눈의 태도는 반드시 똑바라야 하며, 입의 태도는 반드시 정지되어 있어야 하며, 말소리의 태도는 반드시 조용해야 하며, 머리의 태도는 반드시 곧아야 하며, 숨기운의 태도는 반드시 엄숙해야 하며, 서 있을 때의 태도는 반드시 덕스러운 기상이 있어야 하며, 얼굴빛의 태도는 반드시 씩씩한 기운이 있어야 하며, 앉을 때는 반드시 단정하고 곧아야 하며, 거닐 때는 반드시 여유롭고 공손해야 한다.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진정 이에 대해 감히 힘쓰지 않으면 안 되고 양몽재의 제생은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 또 그곳의 창문과 벽에 게시하여 문을 드나들 적에 이를 보고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며 강습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감히 폐할 수 없지만 이들을 결에서 붙잡아 주고 배양하는 길은 그 책임이 본 고을 수령에게 있다. 한가한 날 찾아와 한자리에 모여 제생을 인솔하고 옛사람의 학문을 강명(講明)하면서 권하고 인도해 준다면 보고 느끼며 흠모하여 따라 배우는 사이에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한 성취와 분발이 저절로 있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서원을 설립할 때 시끄러운 도회지와 성곽을 피해 넓고 한적한 지역을 택한 의도는 그래야만 관가 법령의 간섭이나 제어를 받지 않아, 은거하여 정도(正道)를 지키는 선비가 간혹 스스로 없이 서로 오가며 강론하고 사문(斯文)의 벗들이 즐겁게 모여들어 분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학문을 권장하고 청기는 수령의 정사가 전혀 끼여들지 않더라도 문교(文敎)를 숭상하는 조정의 교화가 저절로 깊이 배어드는 실효가 있는 것이다.

— 어진 선비를 예우한다[禮賢士]

본 고을 안에 있거나 이웃 고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벼슬길에서 물러나 은거한 현인이나 성인의 도를 좋아하고 지조를 지키는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원장은 마땅히 학우들을 거느리고 예로써 그를 영접하여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그러면 그를 보고 느껴서 흠모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소득을 어찌 형언할 수 있겠는가. 이를 진정 실천에 옮긴다면 이 말이 어찌 빈말이 되고 말겠는가.

— 금지와 예방을 엄하게 한다[嚴禁防]

장자(莊子), 열자(列子), 노자(老子), 석씨(釋氏, 불교)의 서책과 바둑판이나 장기판 같은 놀이 가구는 모두 서원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일절 이색(異色)의 사람들은 모두 출입하지 못한다. 【이색(異色)이란 무사(武士)나 잡술(雜術)을 익힌 무리이다.】

청작(淸酌 제사에 쓰이는 술) 이외에 다른 술을 빙지 못한다.

윤제(尹祭 제사에 쓰이는 육포) 이외에 소를 죽이지 못한다.

여증은 재당(齋堂)을 출입하며 밥상을 들고 다니게 할 수 없다.

사우(祠宇)를 수리하고, 서책을 점검하고, 창고를 조사하고, 모여서 성토하는 등의 조항은 본디 노후(盧侯)께서 마련한 규약이 있어 그것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금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송정 후 5번째 무오(1918)년 5월 증간함.

※ 鄭述, 『寒岡續集』 권4, 雜著, 『院規』에 수록 일부 글자의 출입 존재.

※ 번역 : 『국역 한강집』, 한국고전번역원, 2001